



제23회 아시아선수권 대표로 출전하는 KIA 외야수 이준호(왼쪽)와 투수 진해수가 선전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8일부터 3일간 대만서 2012년 아시아선수권대회

**KIA 이준호·진해수 “우승하고 오겠다”**

이준호, 첫 태극마크 “역할 충실 경험 충분히 쌓을 터”  
진해수, 세번째 국제대회 “최선 다해 좋은 성적 낼 것”

KIA 타이거즈의 투수 진해수와 외야수 이준호가 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팀과 함께 28일 결전지인 대만으로 향했다. 풀리그로 치러지는 제23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한국을 포함해 일본·대만·중국·필리핀·파키스탄이 출전,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계속된다. 이연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린 1999년 제20회 대회 이후 13년 만의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KIA 이준호와 진해수도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 행보에 힘을 보탠다.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2012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된 2013시즌을 위한 준비 무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좌완 진해수는 “신인 시절인 2006년 대륙간컵 대표로 출전했는데 당시 멤버인 김상현, 박정권, 정상호, 배영섭 등이 팀의 주축 선수로 뛰고 있다”며 “이번이 프로입단 후 세 번째 국제대회다. 상무에서 같이 운동했던 멤버들도 있고, 장재중 코치도 지난해까지 KIA에 계셨던 만큼 호흡이 잘 맞는다. 마

무리 캠프에서 꾸준히 공을 던져 컨디션도 좋다. 대만에 WBC 멤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복무를 마치고 첫 시즌을 보냈다. 그동안 1·2군을 오가느라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기회를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다. 올 시즌 경험도 쌓았고 대표팀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만큼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호에게는 첫 태극마크. 그만큼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이준호는 “군산상고 시절도 그렇고 고교 때, KIA 유니폼도 붉은 색인데 처음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됐다. 대표팀에서 기대하고 주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좋은

경험 쌓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신고선수의 설움을 달고 KIA 외야를 누빈 이준호는 대표팀 경험까지 더해져 되면서 2012시즌은 잊지 못할 해로 남게 됐다. 이준호는 “올 시즌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해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년 시즌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며 “팀의 외야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대표팀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가겠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시즌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손발을 맞춰왔던 대표팀은 28일부터 이틀간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뒤, 28일 오후 1시 필리핀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2경기만에 교체 투입... 팀은 0-0 무승부**

기성용(23·스완지시티)이 2경기 만에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팀은 승점 1을 챙기는 데 만족해야 했다. 기성용은 25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후반전이 시작될 때 이티세르와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기성용은 지난 11일 사우샘프턴과의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상대 골대를 때려로

지지하다가 왼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쳐 18일 뉴캐슬 원정에는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경기에 출전해 후반을 소화하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를 씻었다. 이날 전반을 0-0으로 마친 스완지시티는 후반 기성용을 투입해 중원에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득점없이 리버풀과 비겼다. 스완지시티는 정규리그 최근 4경기에서 1승3무를 포함, 시즌 4승5무4패(승점 17)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구자철, 2경기 연속 풀타임... 팀은 6경기째 무승**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는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이 2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6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구자철은 25일(현지시간) 독일 SGL아레나에서 열린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와의 2012-2013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17일 프랑크푸르트와의 12라운드 원정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했던 구자철은 이날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웠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5분 사샤 뮐더스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후반 40분 파트릭 헤르만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1로 비겼다.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나 승점 1점을 더했지만, 리그 최하위(1승4무8패·승점 7)에 머물렀다. 지난달 5일 브레멘을 3-1로 물리친 이후 6경기 연속 무승(2무4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한샘

광주 FC의 겹없는 수비수 이한샘이 신인왕에 도전한다. 2011 신인왕 이승기는 40경기(기권승 경기 제외) 중 35경기를 베스트 11을 노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6일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개인상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 FC에서는 이한샘과 이승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한샘은 이명주(포항), 박선용(전남)과 함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 신인선수상 후보로 선정됐다. 순천중앙초 출신인 이한샘은 올림픽 대표팀을 거쳐 건국대 시절 대학선발로 활동했으며, 2012 선발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3월4일 홈 개막전에서 교체 출전한 뒤 5월부터 선발로 꾸준히 경기에 나서 2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27경기를 뛰었고



**이한샘, 난 신인왕  
이승기, 난 베스트11**

프로축구연맹, ‘K리그 대상’ 후보 명단 발표



이승기

이중 24경기가 풀타임이다. 이명주는 4월 8일 K리그 데뷔전에서 첫 도움을 올리며 프로 신고식을 치렀고, 33경기에서 4골 4도움을 올렸다. 박선용은 40경기(기권승 경기 제외) 중 35경기를 치르며 새내기 중 최다 출전이다. 지난해 신인왕에 등극했던 이승기는 이번 시즌에는 미드필더 우측 후보로 선정됐다. 에닝요(전북), 이근호(울산), 한지호(부산)가 경쟁자다.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자리한 이승기는 올 시즌 K리그 38경기에 나와 4골1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폭넓은 시야와 정확한 킥으로 공격의 물꼬를 트며 강등위기에 몰린 광주의 전력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우수선수는 데안(서울), 이동국(전북 현대), 광태휘(울산) 3파전이다. 데안(30골)과 이동국(26골)은 팀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골넣는 수비수’ 광태휘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

며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에 올려놓았다. 최우수감독상에는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은 서울 최용수 감독, ‘2012 하나은행 FA컵’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린 포항 황선홍 감독, ‘AFC(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아시아를 제패한 현대의 김호곤 감독, 1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끌어 오고 있는 인천 김봉길 감독이 후보다. 수상자는 가자단 투표로 결정되며 내달 3일 열리는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비수와 미드필더는 좌·우측 자리 1명, 중앙 2명을 선정한다. <K리그 대상 후보 명단> ▲최우수감독: 최용수(서울) 황선홍(포항) 김호곤(울산) 김봉길(인천) ▲최우수선수(MVP): 데안(서울), 이동국(전북) 광태휘(울산) ▲신인선수: 이한샘(광주) 이명주(포항) 박선용(전남) ▲골키퍼: 김

용대(서울) 최은성(전북) 김영광(울산) 김병지(경남) ▲DF: 아디(서울) 박원재(전북) 홍철(전남) 윤석영(전남·이상 좌측), 임유환(전북) 광희주(수원) 김광석(포항) 광태휘(울산) 정인환(인천) 알렉산드로(대전·이상 중앙), 고요한(서울) 오병석(수원) 신광훈(포항) 김창수(부산·이상 우측) ▲MF: 몰리나(서울) 이명주(포항) 자일(제주) 지쿠(강원·이상 좌측), 하대성(서울), 황진성(포항), 에스티벤(울산), 산토스(제주), 까이끼(경남), 김남일(인천·이상 중앙), 이승기(광주) 에닝요(전북) 이근호(울산) 한지호(부산·이상 우측) ▲FW: 데안(서울), 이동국(전북) 라몬치치(수원) 김신욱(울산) 이진호(대구) 케빈(대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전설 ‘3골’ 남았다**

라리가 2골 폭발, 시즌 82골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두 골을 넣는 활약으로 소속팀의 4-0 대승을 이끌고 한해 최다 골 기록에 성공 다가갔다. 메시는 26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시우다드 데 발렌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시즌 프리메라리가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분 선제 결승골을 포함해 2골을 터뜨려 팀의 4-0 완승에 앞장섰다. 이날 활약으로 메시는 올 시즌 82골을 쌓아 한해 최다 골 기록에 3골을 남겨뒀다. 역대 최다 골 기록은 1972년 독일 대표팀과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85골(60경기)을 올린 게르트 뮐러가 가지고 있다. 펠레의 75골(1959년)을 제치고 이 부문 2위를 달리는 메시는 최근 정규리그와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 4경기 연속 2골을 터뜨리는 등 최고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 신기록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의 ‘더블’과 1골 3도움을 기록한 이니에스타의 활약으로 원정길에 승전가를 부른 바르셀로나는 정규리그 6연승과 올 시즌 13경기 무패(12승1무)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또 승점 37이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31)와 전날 베티스(승점 26)를 따돌리고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연합뉴스

**양희은 2012 Dinner Show 2012 송년 디너쇼**

2012년 12월 13일(목)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기념품 증정

티켓가격 ₩165,000원(부가세포함)

예약 및 문의  
신양파크호텔  
062)228-4711~2 062)221-4101~3

특별출연  
송은이